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발돋움

인니 섬에 팜유 정제공장 짓는다

팜사업 확장위해 2481억 투자 건립 부지로 '칼리만탄섬' 검토 원료조달·수출 등 지리적 유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에너지, 식량, 친환경 부품 등 핵심사업에 과감한 투자로 '종합상사'에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팜유 정제사업 진출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억달러(약 2481억원)를 팜사업 확장을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아그파(AGPA)를 통해 투자한다. 정제공장은 올해 4분기 착공 후 2025년 2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며 생산능력은 연간 50만톤 규모다.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정제공장 부지로는 칼리만탄섬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최대 팜 생산국으로, 칼리만탄 섬은 지리적으로 팜 원료 조달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팜유 정제사업은 팜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정제공장을 통해 한 단계 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등에 사용된다. 팜오일은 대두유보다 10배, 해바라기유 대비 7배 등 식물성 기름 중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다.

팜유의 생산성과 경제성 덕분에 정제사업 진출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 농장을 개발해 2017년부터 팜 원유를 생산해 왔다. 팜사업 영업이익 8000만달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 합병 전에 거둔 2022년 전체 영업이익 약 9000억원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팜 농장법인인 PT. BIA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익성 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요구를 상회하는 환경정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환경과 현지 주민의 권리·인권을 보호하며 팜유를 생산하겠다는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인 NDPE를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제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인 RSPO 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7년부터 한국의료진의 의료봉사활동을 조직, 총 7000여명의 현지 주민에게 의료혜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농장 내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설립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 1000여명에게 무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 인근에 맹그로브 나무를 식재하고, 인도네시아 긴팔원숭이 연구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밸류체인 및 정제팜유의 일반적 용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사업 밸류체인 및 정제팜유 일반적 용도 /포스코인터내셔널

를 후원하는 등 환경과 생명다양성 보존에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탁 부회장은 "기존 상사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종합사업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를 식량 사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 조달

및 수요자산 투자를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 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 늦어도 설 전 인사·조직 개편 마무리

구현모 대표 '연임' 강한 의지 반영 윤경림·박종욱 사장 등 이동 주목

KT 구현모 대표가 빠르면 이번 주에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늦어도 설 전까지 인사 및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KT의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은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10일 "올해 임원 인사는 대표이사 선임 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 미뤄졌다"며 "지주형 전환, 계열사 투자 유치 등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경쟁사에 비해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이 늦어짐으로써 KT가 사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업계는 이번 인사에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구 대표 최측근인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경영기획부문장 사장, 신현욱 경영지원부문장 부사장 이동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에게 표적이 됐던 박종욱 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표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KT 지주형 전환의 총책을 맡고 있는 윤경림 사장은 KT의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과 우호 관계 유지에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현재 조직개편 지연으로 지주형 전환에 대한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다. 800억원을 투자하는 KT클라우드는 일정도 연기된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도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주형 전환 및 계열사 투자 유치 작업이 다시 가속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상용화 실증 성공

SKT-노키아, 설치·필드시험 검증 안정적 5G 서비스 속도·성능 확인

SK텔레콤은 국내 최초로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상용화 실증에 성공했다. 클라우드 기반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 상용망 설치 및 필드 검증을 완료한 것이다.

SK텔레콤은 노키아와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을 상용망에 설치, 필드 시험을 통해 안정적인 5G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성능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은 기지국 등 이동통신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한 것을 말한다. 장비간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가 연동할 수 있다.

SKT와 노키아는 지난해 초 5G 64T Rx 장비와 연동된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기지국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픈랜 기지국 연구를 함께 진행해왔다. 이번에 국내 처음으로 상용망에 설



SKT 연구원들이 트래픽 혼잡 상황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테스트 하는 모습. /SKT

치하여 5G 성능을 실증했다. 양사는 향후 오픈랜 기지국으로 5G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SKT와 노키아는 트래픽 자동 최적화가 가능한 지능형 기지국 제어장치(RIC) 개발·검증에도 성공했다. 양사는 기지국간에 트래픽을 분산하는 기술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패킷 지연시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지능형 기지국 제어장치에 적용함으로써 5G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美 포시마크 찾은 최수연 "기술·사업 시너지로 '원팀' 기대"

네이버, 북미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 상견례 갖고 비전·통합 방향성 공유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9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레드우드시티에 위치한 포시마크 오피스에서 상견례 및 사내 설명회를 진행했다. 네이버가 인수한 포시마크는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이다. 지난 6일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포시마크 임직원 800여명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미국 각 도시와 호주, 인도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대표는 네이버의 철학과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인수 이후 비전 및 통합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 웹툰부터 블로그까지 수많은 창업자와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포시마크는 다양한 셀러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인 만큼



10일(미국 현지시간 9일) 진행된 포시마크 타운홀에서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 중인 네이버 최수연 대표. /네이버

다양성이라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포시마크가 그동안 쌓아온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네이버와 협업해 나간다면 네이버의 기술·사업 시너지가 더해져 '원팀'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포시마크 임직원과

통합 이후 계획과 사업 전략, 기업 문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네이버 스마트렌즈 기술이 적용된 포시 렌즈를 시연하기도 했다.

이날 포시마크 임직원 800여 명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미국 각 도시와 호주, 인도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채윤정 기자

기아, 기준금리 적용 모닝 할부 프로모션

기아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모닝 전용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기아에 따르면 '굿모닝' 할부 프로모션은 업계 최초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차량 할부 금리로 적용되는 모닝 전용 구매 프로그램이다.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할부 기간 동안(12·24·36개월 중 선택) 차량 출고월 1일 기준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단 현대 M계열 카드로 선수율 10% 이상 결제해야 한다. 월중 한국은행 기

준금리 변동시 다음달 금리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모닝을 출고하면 1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3.25%의 할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아는 '굿모닝' 할부 출시로 최근 7%를 넘어서는 신차 할부 금리 때문에 차량 구매를 망설이고 있는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는 1월 중 '굿모닝' 프로모션을 통해 모닝을 계약한 고객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